

## 민주노총, 구조조정 저지 등 2018년 투쟁 선포

### 24일 광화문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주도 적폐청산·양극화 해소 투쟁 시작”

민주노총이 2018년 투쟁의 서막을 올렸다. 전국에서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 명이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웠다. 민주노총은 3월 2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

만 원 쟁취 ▲먹튀 해외자본, 부도덕한 자본 단죄와 삶과 일터의 회복 ▲노동시간 단축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 등을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모든 희망을 걸 수 없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적폐청산과 양극화 해소 투쟁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금호타이어, 중형조선소, 한국지엠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 상황을 전하고, 하후상박 임금정책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현재 구조조정은 정권과 자본의 정책 실패와 부실



경영이 빛은 문제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희생 구조조정 중단과 제조업 발전을 위한 금속노조의 호소에 답하라고 경고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하후상박의 연대임금정책을 제시했다. 대기업, 사측이 답할 차례다. 금속노조가 진정한 상생, 함께 살지는 시대정신을 만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근 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 지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편인지 먹튀 자본의 편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해 정규직, 사무직, 비정규직 모두 힘을 모아 싸우겠다”라고 의지

를 밝혔다.

최저임금 무력화 비판에 나선 강규혁 서비스연맹위원장은 “국회와 언론은 노동자 양보론 선동을 중단하고 재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도 중단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줄이고, 사측과 사측 처치를 대변하는 전운기를 참여시킨다. 쥐꼬리만큼 전환한 뒤 정규직에 양보와 고통만 강요하고 있다”라며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허상을 폭로했다.

니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노동시간 특례와 타임오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관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과 운수 분야의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서울시민과 청와대에 민주노총의 요구를 전했다.

## “대정부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나설 때다”

### 구조조정 대책 마련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노동자 죽음 내몰면 민주노총 노정대화 재고해야”

금속노조가 3월 2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엠 먹튀항각 규탄, 금호타이어 해외마약 철폐, 중형조선소 대책 마련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산업정책을 맹렬히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노동자의 생존권과 지역경제를

파탄 내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승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외투자본과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만 거리에 내몰려 생겼다. 이제 대정부 구조조정 저지 투쟁으로 생존권을 지켜야 할 때다”라며 노조의 투쟁을 경고했다.

홍지욱 경남지부장은 “정부 정책이 계속 노동자들

을 죽음으로 내몰면 민주노총은 노사정은 물론 노정 대화도 재고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현선 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 사무국장은 “3월 22일 중국 대불스타 화장이 지회에 방문한다고 했지만 가짜였다. 먹튀자본과 연담은 필요 없다. 생존권을 두고 협상할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했다.